

예슈아께서 주님이시다

신약의 가장 중요한 선포 중 하나는 “예슈아께서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슈아께서 주님이시라는 말은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이 그 분께서 시키시는 무엇이든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래의 예를 통해 무엇이 틀렸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눅 6:46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데에 그쳐선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신약 가운데 가장 “끔찍한” 구절은 많은 이들이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면서(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도, 실제로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는 부분은 예슈아를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마 7:21-23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기본적인 도덕적 순종으로부터 떨어진 믿음은 큰 속임의 근원이 됩니다. 그 속임이 얼마나 큰지, “많은” 이들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것은 이 문제의 만연한 상태입니다. 많은 이들은 구원이 그저 고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순종에 대한 헌신은 절대적입니다.

예슈아의 주 되심과 구원

“예슈아께서 주님이시다.”라는 문장은 신약 서신서에 세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백과 구원에 관련된 문맥입니다.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구절은 고백만이 필요함을 증거하기 위해 인용된 것입니다. 허나 이 고백은 진실된, 마음으로부터의 시인이어야 합니다. 예슈아께서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분께 순종하기로 언약적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슈아께 순종하기로 언약적 헌신을 선포해 놓고, 뒤에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 구원의 선포는 우리 입술에서 그 분의 주 되심과 순종이 먼저 나오게 합니다. 순종 없이 고백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증거하기 위해, 예슈아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구절을 사용하는 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 분을 주님 되시게 하지 않고, 예슈아께서 주님이시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 분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구원을 떨어뜨려 말합니다. 구원이 첫 단계이고 그 다음에 그 분을 ‘선택적으로’ 주님으로 맞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롬 10:9 은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 절대적이지가 가장 우선되는 단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적 은사들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을 사랑하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예슈아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과 관계된 두 번째 사항은 바로 “오순절과 같은” 은사들입니다.

고전 12:3-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세상에는 갖가지 초자연적 체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예슈아의 주 되심입니다. 이것은 그저 말로만 예슈아께서 주님이시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적적 은사들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그 분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 되심의 선포도 무의미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영적 은사들은 “메시아닉” 혹은 “크리스천”이라는 가면 아래 주술의 형태로 퇴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 성령의 은사들을 행하면, 그 은사들은 성령께서 우리 삶과 우리 이웃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한 “오순절과 같은” 은사들을 예슈아의 주 되심과 분리시키는 것은, 주술로 향하는 위험한 행로가 됩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도덕적 순종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 능력을 발하는 것입니다.

영적 권세

예슈아의 주 되심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분의 권세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분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엔, 우리에게 그 분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 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면, 그 권세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이 간단한 믿음의 법칙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권세는 위로도, 아래로도 움직입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모든 참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아를 통해 인류에게 전해집니다. 권세의
흐름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권세 안에 있으면 그
권세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권세 안에 있지 않다면,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
권세를 갖는 열쇠는 예수아의 주 되심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빌 2:8-9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 2장은 우리에게 예수아와 같은 태도를 품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누구보다 높은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로 헌신하면, 우리에게도 영적 권세가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아께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아께 주신 권세의
일부를 우리에게 나눠 주시기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은 엄청난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 권세에 대한 열쇠는 우리의 순종과 예수아의 주 되심에
있습니다.

인트레이터 소식:

- 저희 아들 예헤즈켈과 며느리 오델랴가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저와 아내(베티)는 기쁩니다.
- 또한 저희 아들 프레디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구약학 및 국제 관계”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기쁨으로 전합니다.
- 지난 주 이스라엘 TV와 녹화한 인터뷰를 위해서 계속 강력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방송 일자 결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